김 미 란

Kim, Mi-Ran

기계의 무의식
An Unconscious State of Machines

김미란
Kim, Mi-Ran

경기창작센터
Gyeonggi Creation Center

2013 경기창작센터 하반기
특별기획전 〈기억〉

기획
경기창작센터

총괄진행
김진희(학예팀장)

진행
김현정, 윤가혜, 최정수, 박슬기

행정지원
채치용(기획사업팀장), 차영근,
김미선, 이문희, 김홍환

큐레이터 어시스턴트
이현인, 서정민, 조혜정,
이주현, 조근하

시설지원
박문철, 김원철, 박종호, 김남영,
조관휘, 박종원, 강제을,
김병완, 김일용, 심종범, 김옥엽,
유일순, 이정숙, 신진영

디자인
워크룸

인쇄
인타임

번역
신해린, 김현정

편집인
경기창작센터장 박희주

발행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엄기영

발행처
경기창작센터

발행일
2014. 3. 4

본 출판물은 2013 경기창작센터 하반기
특별기획전 도록으로 경기창작센터에서
발행하였습니다. 본 권에 실린 글과 도판은
경기창작센터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창작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
t 032 890 4820
f 032 890 4880

www.gyeonggicreationcenter.org

Twitter
@creation_center

Facebook
Creationcenter

Gyeonggi Creation Center:
Special Exhibition in 2013
<Memory>

Organised by
Gyeonggi Creation Center

Publication in Charge
Kim Jinhee(Chief Curator)

Curatorial Support
Kim Hyun Jeung, Kaye Yoon,
Park Sulki, Choi Jeong Soo

Administrative Support
Choi Chi Yong(manager),
Young Kun Cha, Mi Sun Kim,
Lee Moon Hee, Kim Heung Hwan

Curator Assistant
Lee Hyunin, Seo Jeongmin,
Cho Hyejung, Juhyun Lee,
Keunha Cho

Maintenance Support
Park Moon Chul, Kim Won Chul,
Park Jong Ho, Kim Nam Young,
Cho Kwan Hui, Park Jong Won,
Kang Jae Ul, Kim Byong Wan,
Kim Il Yong, Sim Jong Bum,
Kim Ok Yeup, You Il Soon,
Lee Jeong Sook, Sin Jin Young

Graphic Design
workroom

Printing
intime

Translation
Haerin Shin, Kim Hyun Jeung

Editor
Park Hui Joo
Director of Gyeonggi Creation
Center

Publisher
Um Ki Young
President of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Date of Publishing
4 March, 2013

This book is published in conjunction
with the catalogue for special
exhibition <Memory> of 2013 and
GCC artists' activities.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or
utilised in any means without
permission of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Creation Center

101-19
Seongam-Ro, Fanwon-gu,
Ansan-si, Gyeonggi-do, Korea
t 032 890 4820
f 032 890 4880

〈기억〉을 열며

경기창작센터의 2013년 하반기 특별전은 당해 입주작가 5인(팀)의 소규모 개인전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전시는 경기창작센터를 새롭게 리모델링한 이후 대규모 상설전으로 입주작가 쇼케이스 전시를 선보인 데 이어, 전시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매우 실험적이고 다매체적인 방식의 작업들을 선보였고 참여작가인 김미란, 박형근, 고영택, 이혁준, ETC 총 5팀이 경기창작센터에 입주하여 전개해 오던 작품들과 그 과정들을 소개하고 향후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선보일 수 있는 새로운 전시공간으로서의 기능, 활용성,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경기창작센터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 야키요시다이 국제아트빌리지(Akiyoshidai International Art Village)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돌아온 이혁준의 결과보고전이자 소유와 욕망이라는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우리의 삶과 그 본질을 돌아보고자 반문하는 새 작업을 소개하는 〈AIAV결과보고전: 소유_돌〉, 어느 날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점점 무너져갈지도 모르는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징후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고영택의 영상설치 작업 〈징후–무너지는 것의 무게〉, 작가의 꿈과 환영으로부터 출발하여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들을 거대한 와이어설치와 영상으로 보여주는 김미란의 〈기계의 무의식〉, 작가의 고향인 제주도의 생태지대 곶자왈이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을 가진 자연지대에 대한 기억, 그 장소가 감내해야 했던 역사적 상흔을 통해 작가를 지배하는 의식, 무의식의 세계를 사진작업으로 보여주는 박형근의 〈금단의 숲: 곶자왈, 숲의 기록 2009–2013〉, 경기도 연안 일대의 섬들에서 정주하며 사라져가는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모아 한 여성의 일대기를 만든 프로젝트, ETC의 〈시화, 시가 되다〉는 모두 '기억'(memory)을 매개로 독특한 그들만의 내러티브를 구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A Return to the Time and Place Where the Outset of One's Self Began

Kim, Mi-Ran

Artist's Notes 2013

In dream images, the order differs from that of reality. The unconscious arrives somewhere first, followed by consciousness and cognition, which then leads to visual perception. The distance between the unconscious and consciousness is far; the interval is even farther between the unconscious and our senses. The factories I see as I walk through the industrial complex, and the view of exposed machineries, touch upon my unconscious, bypassing consciousness. The landscape of the unconscious, infiltrating my vision without being filtered by consciousness, is exceptionally shocking.

The factories and exposed machineries are structures I could reach only in dreams, touching the base of the deep unconscious. I finally found the structures that I knew were there but could not see as a whole - existing from times unknown. The factory is alive, breathing, generating or consuming energy, and beating in sync with my own biorhythm. The biological structure of the factory is identical to that of my own self. Therefore, the phase of unconscious I encounter upon reaching the inner depth of my conscious is a biological matter.

The factory (or machinery), as a live and moving organism, dreams and cognizes dreams. It also has the will to realize the dreams. When passing through the noise and fumes of the factory, which works just like the biorhythm of my own body, I become the object of the factory's dream. The dream the factory dreams, not myself.

Artist's Notes 2014

"The Unconscious of Machines(氣械-energy+formula)" begins with my drawings on dreams and the unconscious, dating back to 2011. Since becoming a resident artist at Gyeonggi Creation Center in the later half of 2012, I created visual works that combine 13 animations portraying the factories in Ansan and Shihwa's industrial complexes. Also, I installed the paintings of the factories on the walls and open spaces, using wires.

"Energy + Formula (氣械)" is at once the homonym and heteronym of the "machine (機械)." Should one see the word (Kike: "machine") as a living, biological organism, its functions can be equated to the workings of life. Therefore, the machine becomes energy+formula, alive and full of life force.

Kike as energy+formula means "air in a frame." The frame is our consciousness, and the air is the unconscious. The silhouette is the consciousness, and the short, vibrant lines that fill and penetrate the silhouette are the unconscious. Space-installation drawings are the silhouette, and the machine. The air in the empty frame is the energy and the unconscious. The air, the energy, the self (the viewers) that float among the frames and silhouettes are the unconscious of the factory, which is the subject of the silhouette. I float about the dreams of the factory (machine) as the material of the dream, and its unconscious.

김미란

작업노트 2013

꿈의 이미지들에선 순서가 현실과 다르다. 무의식이 먼저 어느 곳에 당도하면 의식이 뒤따라와 인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인식된 것이 눈에 보인다. 무의식과 의식의 사이는 멀며, 무의식과 오감의 사이는 아주 멀다. 공단을 지나다니며 눈에 보이는 공장과 노출된 기계들의 풍경은 의식을 건너뛰어 무의식을 건드리는 것들이다. 의식에 의한 걸러짐 없이 바로 시야에 나타나는 무의식적 풍경은 매우 충격적이다.

공장과 노출된 기계들은 내가 꿈 속에서 다시 꿈을 꾸며 저 깊은 무의식의 바닥에 이르러야 도달했던 구조물들이다. 난 그 안에 있으되 결코 전체 외형을 볼 수 없었던 구조물들이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음을 마침내 발견한 것이다. 공장은 살아 있어 숨을 쉬고 에너지를 소비하거나 생산하고 있으며 내 안의 생체적 리듬과 똑같은 리듬으로 박동한다. 공장의 생체적 구조는 내 안의 생물학적 구조와 같아서 의식의 가장 밑바닥에 닿을 때 만나는 무의식의 단계는 생체적 물질인 셈이다.

그 자체로 살아서 팔팔하게 생동거리는 생물체로서의 공장(혹은 기계)은 생체로서 꿈을 꾸고 꿈을 의식하며 그 꿈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가진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체적 리듬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공장의 소음과 연기 속을 통과할 때 난 공장이 꾸는 꿈의 대상이 된다. 내 꿈이 아니라 공장의 꿈인 것이다.

작업노트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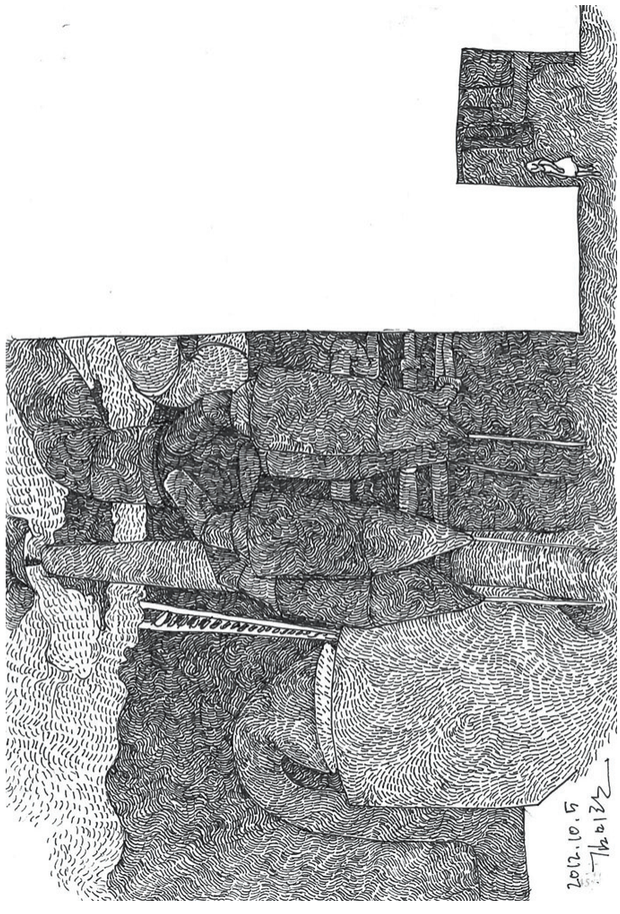
'기계(氣械–energy+formula)의 무의식'은 2011년부터 그려온 꿈과 무의식에 대한 드로잉에서 시작한다. 2012년 하반기 경기창작센터 입주 후 안산시화 공단지대를 지나며 그려온 공장풍경들 중, 13개의 장면을 애니메이션으로 엮어 영상으로 표현했다. 또한 회화에서 선보였던 공장 이미지들을 벽과 공간에 와이어를 사용하여 드로잉형태로 설치하였다.

기계(氣械)는 기계(機械)와 동음동의어인 동시에 동음이의어이다. machine으로서 '기계'를 하나의 생명체로서 생체적 기관이라고 봤을 때 기계의 작동은 살아있는 생명의 작용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기계는 器械 안에 氣로 가득 차서 살아 있다는 의미로서 기계(氣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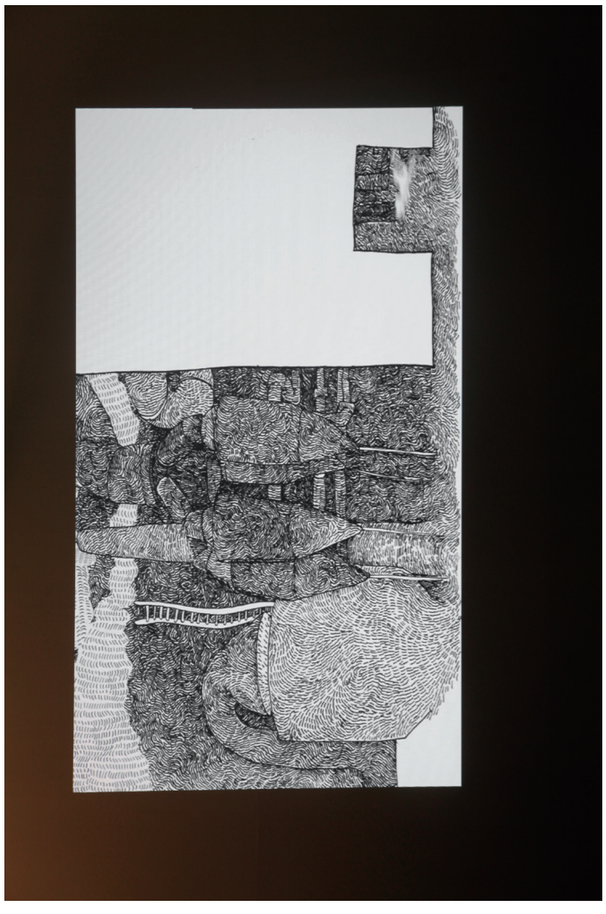
기계는 '틀 안에 있는 공기(空氣)'이다. 틀은 의식이며 공기는 무의식이다. 윤곽은 의식이며 윤곽을 채우고 관통하며 꿈틀거리는 짧은 선들은 무의식이다. 공간설치 드로잉은 윤곽이며 의식이고 械이다. 텅 빈, 아무것도 없는 틀 사이의 공기는 氣이며 무의식이다. 윤곽 사이를 흘러 다니는 공기, 기, 즉 나(관람자)는 윤곽의 주체인 공장의 무의식이다. 공장, 혹은 기계가 꾸는 꿈 사이를 나는 꿈의 재료로서 혹은 무의식으로서 흘러 다닌다.

원시초지836-5stx
장지에 분채
152 x 118 cm
2013

기계의 무의식
펜드로잉#32
14 x 21 cm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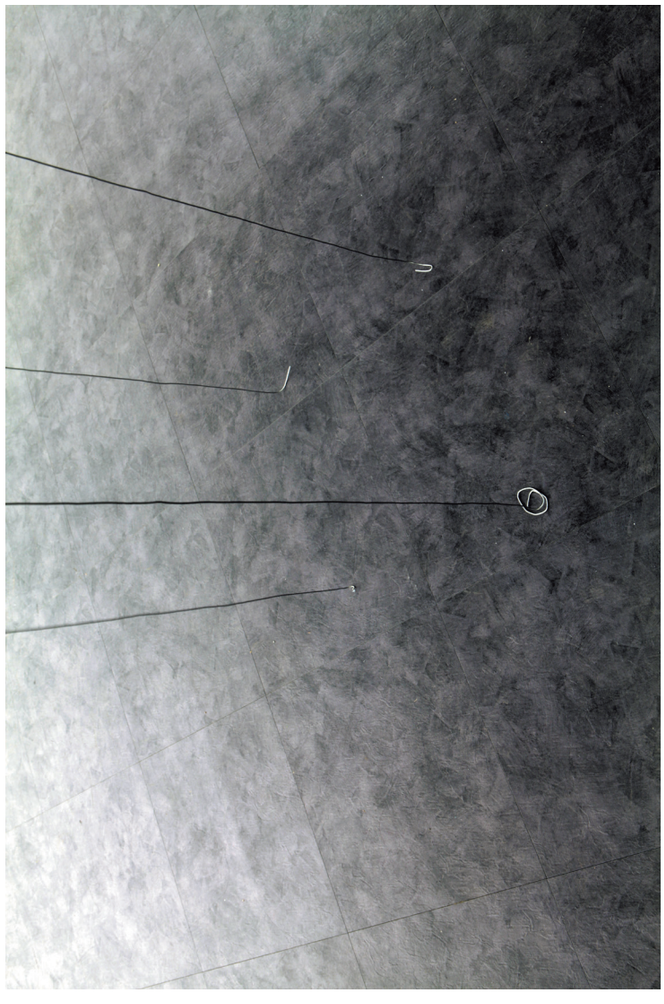
기계의 무의식
애니메이션 scene12-13
250 x 130 cm(가변크기)
2013



drwing installation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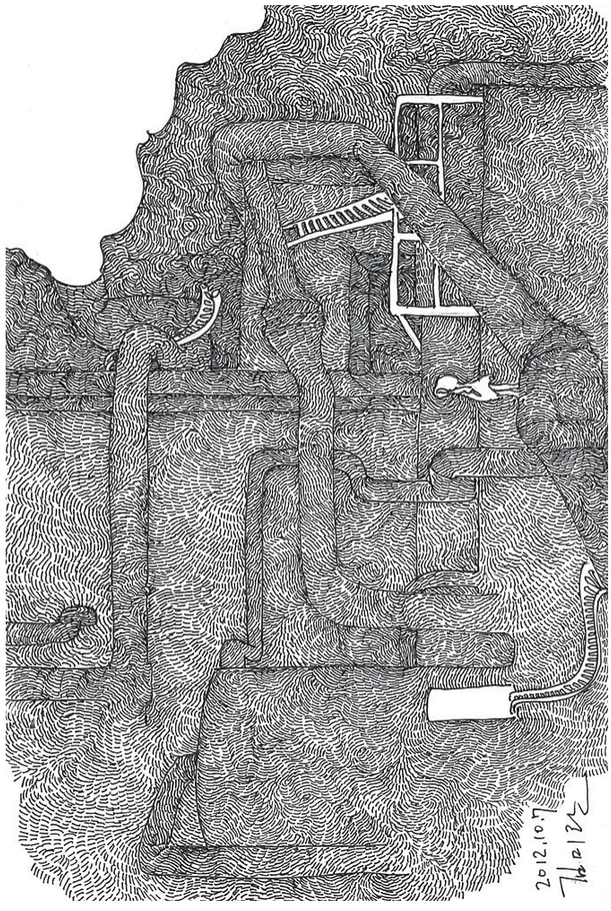
드로잉설치
알루미늄 와이어
전시장 4개의 벽면전체
2014

기둥, 꿈의 주체
45 x 45 x 350 cm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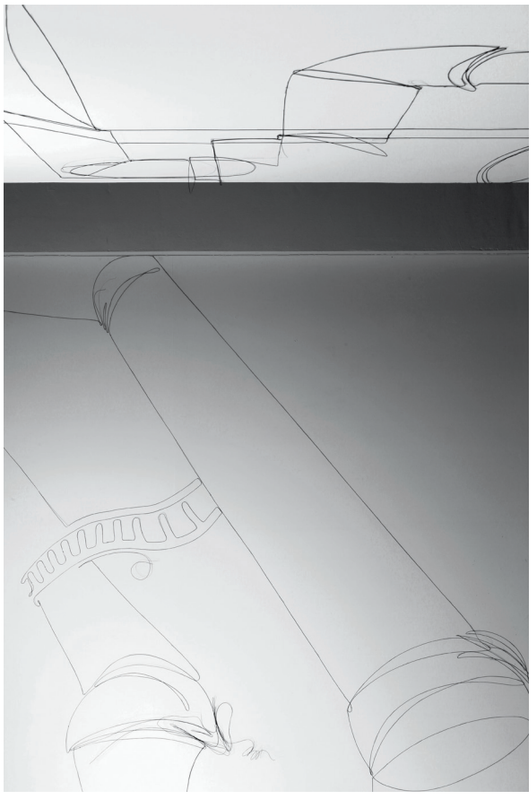
초지654-3
장지에 분채
145 x 112 cm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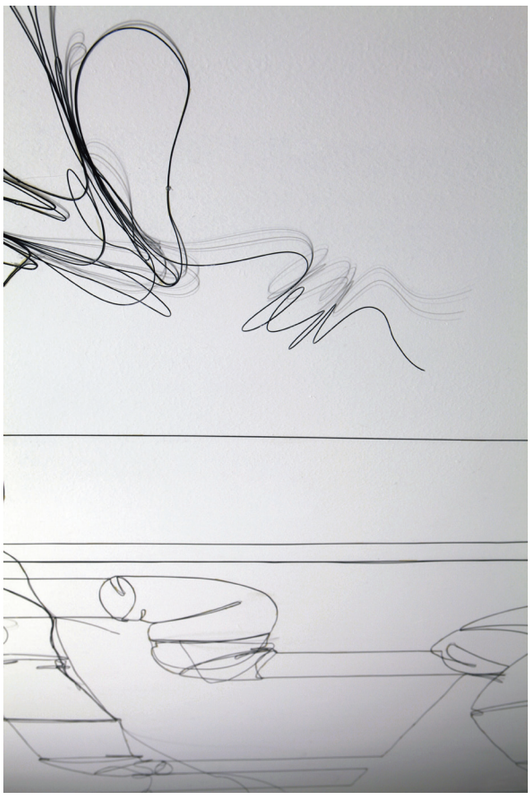
기계의 무의식
펜드로잉 #33
14 x 21 cm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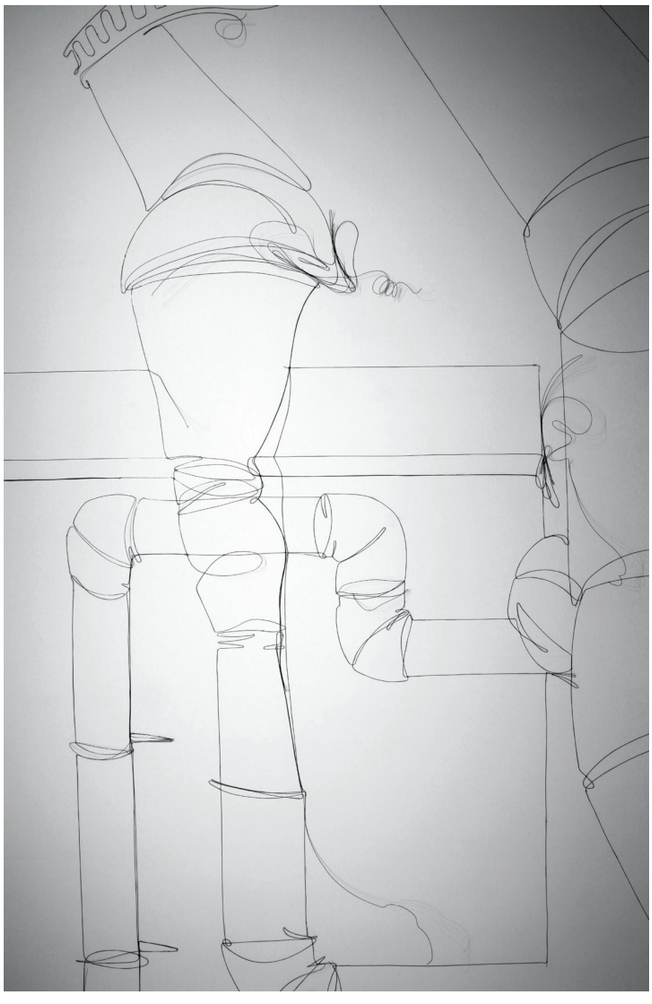
기계의 무의식
애니메이션 scene11-13
250 x 130 cm(가변크기)
2013

drwing installation
2014





drwing installation
2014



기계(氣械)의 무의식

이현경
미술 평론가

김미란 작가는 그녀의 작품 〈원시 초지 STX〉(2013)에서 땅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며 생동하는 공장의 풍경을 보여준다. 김미란 작품 속의 공장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공장 풍경으로 연상하는 낙후된 건물과 매연을 내뿜는 굴뚝 이미지가 아니다. 그녀의 공장은 마치 울창한 숲 속의 한 장면처럼 파이프는 푸른 식물의 줄기로, 매연은 바람에 펄럭이는 커다란 잎으로 표현되어 있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그저 차가운 사물에 불과한 공장과 기계들이 김미란의 작품에서는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유기적으로 땅과 하늘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하여 보통의 칙칙하고 어두운 기계들은 강렬한 원색을 품고 있으며 그로인해 정지된 화면임에도 불구하고 약동하는 생명력이 느껴진다.

일반 사람들은 결코 공장을 바라보면서 생각지 않는 자연의 생명력을 포착했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됨으로 인해 작가가 우리의 인식 너머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현실에서는 오염물질로 자연을 훼손하는 공장은 결코 풍성한 나무의 본체로 대변될 수 없다. 그러나 작가는 현실의 가시적인 형태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 점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면 작가가 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내 작업은 꿈과 환영의 이미지에서 출발한다. 정체 모를 어떤 것으로부터 끊임없이 쫓길 때 비상구는 언제나 끝이 없을 듯 이어진 계단 맨 아래 겨우 통과할 만한 크기의 구멍이었고, 좁은 사다리를 힘겹게 올라가야 만나는 작은 문이었다. 구멍이든 문이든 일단 열고 들어서면 만나게 되는 무의식적 공간들이 작업 내용이 된다. (김미란, 「작업노트」, 2012)

작가의 말대로라면, 그녀의 작품은 오랫동안 작가의 삶과 함께했던 꿈과 환영과 같은 무의식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작가는 어린 시절 유독 몸이 약한 아이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무렵에는 다른 친구들이 방학이 끝나고 학교를 가도 함께 등교할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집에 누워 홀로 앓고 있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늘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서 수없이 많은 환영을 보았다. 끝도 없이 쏟아지며 중첩되는 환영 속에서 그녀의 존재는 지극히 작은 부분이 되었으며, 일반인들이 현실에서 절대 볼 수 없는 장면들이 작가에게는 현실이 되었다. 어린 시절 이 몇 년의 체험들은 건강한 성인이 된 후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지만, 김미란 작가는 이 체화된 환영의 감각을 잊지 못했다. 그녀의 특별했던 몇 년간은 이후 작가의 삶에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매우 특별한 감수성을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감수성은 우리가 꿈을 꿀 때 나 자신이 그 경험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때로 관찰이 되는 객체가 되기도 하듯이, 한 발 물러나 있는 자신은 그 상황의 객체이며 그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사물이 주도적인 주체가 되는 체험의 인식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마치 만화처럼 '사물인 꼬마자동차 붕붕의 의지에 의해 어디론가 끌려가는 나'와 같은 상황인 것이다. 다시 작가의 말을 들어 보자.

(공장은) 녹슬어 가며 끝없이 오염물질을 내뿜는, 자연환경에 해로운 존재나 물질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살아서 팔팔하게 생동거리는 생물체로 보인다. 공장과 공장의 기계들은 생체로서 꿈을 꾸고 꿈을 의식하며 그 꿈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가진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체적 리듬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공장의 소음과 연기 속을 통과할 때 난 공장이 꾸는 꿈의 대상이 된다. 내 꿈이 아니라 공장의 꿈인 것이다. (김미란, 「작업노트」, 2013)

작가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기창작센터에서 입주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경기창작센터는 대부도에 있고, 이 대부도는 안산의 공장 지대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섬이다. 이런 안산의 시화 공장지대를 늘 친숙하게 접했던 작가는 그녀의 삶의 일부인 공장을 그녀 특유의 객체화된 감수성으로 바라본 것이다. 또 작업노트의 말대로 그림을 보면, 화면 구석에는 언제나 작은 구멍이나 문을 통과하여 무의식의 세계로 이르는 한 소녀가 있다. 이 소녀는 이미 눈치 챘겠지만 작가 자신이다. 김미란의 작품은 작가가 그 자신의 환영으로 막 들어가는 순간 시작된다. 그리고 그녀의 무의식은 늘 무생물과 생물이 유기적으로 얽히면서 끝도 없이 생장하는 공간이다.

작가는 물질인 공장에 작가의 어떤 무의식을 투사 하였는가? 조심스럽게 접근해보자면 작가는 공장에게 예술가인 작가 자신의 모습을 투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오랜 기간 쉼 없이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공장은 20여년이 넘는 오랜 작업생활 동안 무언가 (작품)를 만들어냈던 작가 자신이 오버랩 된다. 작품을 생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들이 결국 공장의 폐기물처럼 쌓여만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작가의 예술 활동은 카라의 말처럼 우리가 보다 의미심장한 존재의 가치를 느끼도록 하는 생명력 있는 활동이다. 그렇기에 그녀의 작업은 고독할지언정 절대 우울하지 않다. 오히려 환상적인 빨강, 초록, 파랑이 조화롭게 교차하며 미지의 생명이 움트는 공간이다. 이 또한 그녀의 작업이 미스터리하지만 무섭지 않고, 불합리한 것 같지만 밝고 긍정적인 이유이다.

김미란 작가의 무의식이 먼저인지 그녀의 특별한 감수성이 먼저인지 모르겠으나 작가는 꽤 오랫동안 '사물의 혼'에 귀를 기울여 왔다. 그리고 이런 '사물의 혼'은 결국 사물의 무의식이며, 사물의 무의식은 이를 바라보는 사람의 투사된 무의식이다. 그러므로 말장난 같지만 결론은 작가의 주된 관심이 자신의 무의식이란 말이다. 그리고 작가에게 이 무의식의 이미지는 나무가 자라서 뻗어나가는 모습과 흡사하다. 왜냐하면 무의식이 담겨있는 인간의 뇌는 뉴런이라는 신경 세포가 끊임없이 신경 물질을 전달받으면서 활동하는 공간이고, 그 뉴런의 모습은 성장하는 나무처럼 또는 섬유의 조직처럼 갈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심리학자 융은 무의식을 글자 그대로 의식되지 않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고 시시각각 의식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마음의 세계라고 하였다. 즉 내가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모든 것, 언젠가 의식했지만 이제는 망각된 모든 것, 나의 감각에 의해 인지되었지만 의식이 유념하지 않은 모든 것, 내가 의도 없이, 주의하지 않고, 다시 말해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고자 하고, 행하는 모든 것, 내 안에 준비되어 있어 나중에야 비로소 의식에 나타나게 될 모든 미래의 것, 이 모든 것이 무의식의 내용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무궁무진한 무의식을 갖고 있지만, 이를 현실 속에서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의식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일반적으론 꿈이 바로 우리가 살면서 무의식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통로이다. 그러나 꿈이 아니고 무의식을 인식하는 방법은 물건이나 사람에게 투사된 자신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자신의 무의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건강하고 조화로운 정신을 만들기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김미란의 작품은 좋은 파장을 남기고 있지 아니한가?

미술비평의 평문 중에서

김미란
010-4272-5779
oldforeste@naver.com

학력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조각과및 동 대학원 졸업
홍익대학교 대학원 예술기획과 졸업
서울시립대, 전남대, 충남대 강사역임

현재 경기창작센터 기획레지던시 입주작가

개인전
2013 *기계(氣械)의 무의식*, 경기창작센터 기획
기계의 무의식, 안산시 초대 개인전, 단원미술관
open studio-부스 개인전(공간드로잉 워크샵),
경기창작센터 중앙동 1층
2010 *경계*, 단원전시관

퍼포먼스
2010 *경계*, 단원전시관
2009 *퍼포먼스 444*, studio